

전주시보건소, 건강한 임신·출산 돕는다

임신 희망 부부당 1회 한해 여성 최대 13만원·남성 최대 5만원 각각 지원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시보건소는 올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임신 준비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선윤의 주수지 생활 보건소 및 e보건소**

부부일 경우, 여성이 15~49세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검사 등을 위한 검사비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남성은 정액검사 비용 최대 5만 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검사 전 주수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사전 신청 및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사업에 참여하는 전곡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검사비 납부 금액을 3개월 내 구비서류를 지참해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단, 'e보건소'를 통한 신청은 오는 6월부터 개통될 예정으로, 개통 전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문서24' 누리집(docu.gdc.go.kr)을 통해 신청해

야 한다. 참여 의료기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e-보건소'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063-281-6281) 또는 덕진보건소 건강관리팀(063-281-8628)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지난 4월부터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병동 남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기존에 시행해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 지원 등에 대하여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김신선 전주시 보건소장은 "이 사업을 통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필수가임력 검사를 조기에 시행함으로써 위험 요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를 희망하는 많은 부부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군산시·남원시·김제시·원주군·진안군·순창군 등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 위한 공동마케팅 추진

전주시, 도내 6개 시군과 '서울국제관광전'서 공동 홍보부스 운영

전주시는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39회 서울국제관광전'에서 군산시·남원시·김제시·원주군·진안군·순창군 등 전북특별자치도내 지자체들과 함께 공동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시는 공동 홍보부스를 함께 운영하는 도내 타 지자체와 관광공동체로 동반 성장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구역별 홍보 중심의 지자체 부스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박람회 주제 및 참여 시·군의 관광 테마를 반영한 개방형 통합부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수도권 관광객 및 개별여행객을 대상으로 시·군별 관광명소 소개 △홍보영상 송출 △시·군 연계 여행 상담 등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공동 참가 시군을 '여행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는 관광지'로 홍보하는 등 공동마케팅에 적극 임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전주정원산업박람회 관람객 '역대 최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38만명 다녀가... 다양한 정원 소재·기술 '호'

전주시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전주월드컵광장에서 개최된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에 전년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8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고 9일 밝혔다.



제4회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역대 최대인 38만 명의 관람객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전국의 정원 관련 138개 업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정원 소재와 기술을 선보였다. 정원산업전은 전국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소비자의 구매행동이 이어지고 업체간 B2B 거래도 활발히 이루어져 정원산업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황지해 특별초청작가를 비롯해 박정아·조동범 초청작가의 정

원, 시민작가정원들은 이번 박람회의 하이라이트로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구체적으로 △황지해 작가의 '물방하고 싶은 말' △조동범 작가의 '오늘은 도토리, 내일은 숲' △박정아 작가의 '사시풍류' 등의 정원은 특히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올해 박람회에서는 △20가족이 박람회장에서 만드는 가족정원 조성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 △우리 가족 화분 만들기 등 다채로운 정원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시는 올해 박람회가 역대 최대 관람객 유치 등의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만큼 전주가 정원산업 선도도시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향후 대한민국 정원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도 다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완산구,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행사 열어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배희곤)는 9일 중증장애인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완산구청 1층 로비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 홍보 및 판매행사를 열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주관하고 도내 4개

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판매망을 확보해 안정된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사무용품부터 제과제빵류, 홈세트, 참기름, 들기름 세트 등 다양한 제품을 전시 및 판매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 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완산구는 이번 판매행사를 통해 우선구매 제도를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날 배희곤 완산구청장은 "이번 행사가 장애인의 경제 사회적 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촉진 및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보건소, 하절기 집중방역소독 가동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는 여름철을 앞두고 각종 감염병의 매개체인 모기 등 유해해충을 박멸하기 위한 하절기 집중방역소독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보건소는 예년보다 이른 더위로 인해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하절기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구도심 정화조와 집수정, 복개하천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유충구제와 잔류분 무소독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또한 시는 주요 산책로와 공원, 천변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소나 방취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 31대와 친환경 해충유인 퇴치기(포충기) 338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제 활동을 돕기 위해 방역소독장비를 1인 1대(기분 7일 이용 후 반납) 무료로 대여해주는 서비스도 추진하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해충 방역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 동 방역반 45명(35개 동)을 배치하고, 대단위 아파트 주변과 도심 내 하천, 공원, 산책로 등에 대해서는 방역소독 차량 10대를 9구역 28코스를 편성해 구역별로 선제적인 방역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일일 모기발생 감시장비 8대를 도심공원과 한옥마을 등에 설치, 수집된 모기발도 자료를 활용한 '근거 중심 방역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해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증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출: 전주시 제공)